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소매 판매 4개월 연속 늘어났다
- Bloomberg: 연준, 금리 상승폭 보다는 금리 유지 기간에 더 초점
- Bloomberg: 8월 뉴욕주 제조활동 크게 위축... 주문 건수 하락
- WSJ: 미 홀리스 숫자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

[오일]

- Bloomberg: 원유 배럴당 90불 근접... 수요 줄지 않아
- CNN Business: 미국 휘발유 가격, 10개월 만에 최고치

[반도체]

- WSJ: 왜 백악관은 반도체산업 진작을 위해 월가에 접근할까?

[한·미·일 관계]

- Axios: 미국 한국 일본, '위기사 핫라인 개설' 공동 발표 가능성
- The Economist: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제도화는 후임자 번복 방지 목적

[아시아 경제]

- WSJ: 일본 "2분기에 6% 성장률 기록했다"
- WSJ: 중국 "금리 인하와 청년 실업률 데이터 발표 중단"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소매업체들이 혼란 느끼는 4가지 이유
- CNN Business: Home Depot 매출 둔화, 미국인의 낮은 주택 선호도 현상
- WSJ: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1년 만에 약 25%↑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Shoppers Boost Retail Sales for Fourth Straight Month

미 소매 판매 4개월 연속 늘어났다

- 7월까지 연속 소매 판매가 증가해 견고한 노동시장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계속 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스토어, 온라인, 식당의 소비 지출을 가늠하는 7월 소매 판매는 전월에 비해 계절 조정치로 0.7% 상승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 증가 속도가 6월 보다 빨랐고 소매 판매 증가세가 전월의 0.2% 소비자 가격 상승 보다 빨랐다.

WSJ 기사

Bloomberg: The Fed's Interest-Rate Debate Is Shifting

연준, 금리 상승폭 보다는 금리 유지 기간에 더 초점

- 연준 관리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정책을 끝내는 단계에 이르면서 이제는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보다는 높은 금리를 얼마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내부 논의가 바뀌고 있다.
- 현재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고 있어 정책 관리들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당분간 현재 금리가 가깝도록 유지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을 보이기를 주저하고 있다.
-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어도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오래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논의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고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Contracts by More Than Forecast in August

8월 뉴욕주 제조활동 크게 위축... 주문 건수 하락

- 인플레이 압력이 올라가는 중에 주문이 감소하는 가운데 8월 뉴욕 제조활동이 예상 보다 크게 위축됐다.
- 뉴욕연방은행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20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19로 나타났다. 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 동시에 이날 발표에서 향후 지표는 미래의 수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 또한 최근 완화된 인플레이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뉴욕주의 지불하고 받은 가격 측정치는 모두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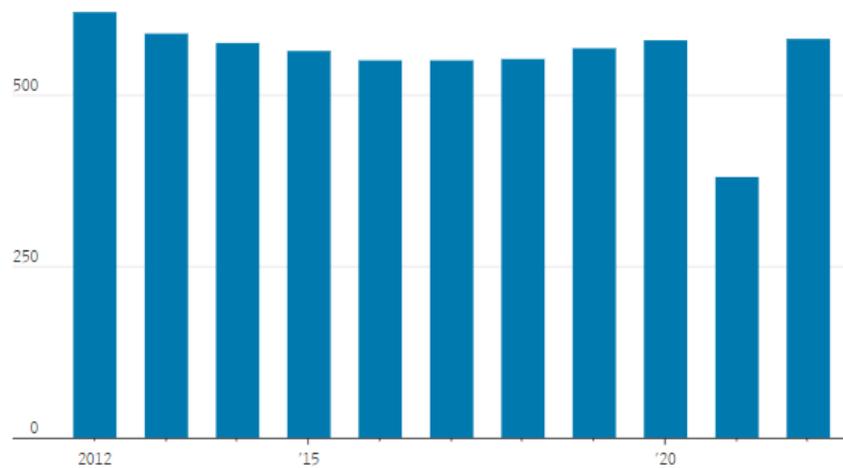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More Americans Are Ending Up Homeless—at a Record Rate 미 홈리스 숫자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

- 팬데믹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올해 홈리스 숫자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관련 자료를 집계한 월스트리트지는 밝혔다.
- 작년에 비해 약 11%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을 증가 수치다.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2019년에 2.7%였다.
- 이같은 증가 이유는 주택 비용 상승, 저렴한 임대 주택 부족 현상, 지속적인 마약 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Homelessness in the U.S.

750 thousand people



Note: 2021 figure is lower because of pandemic counting disru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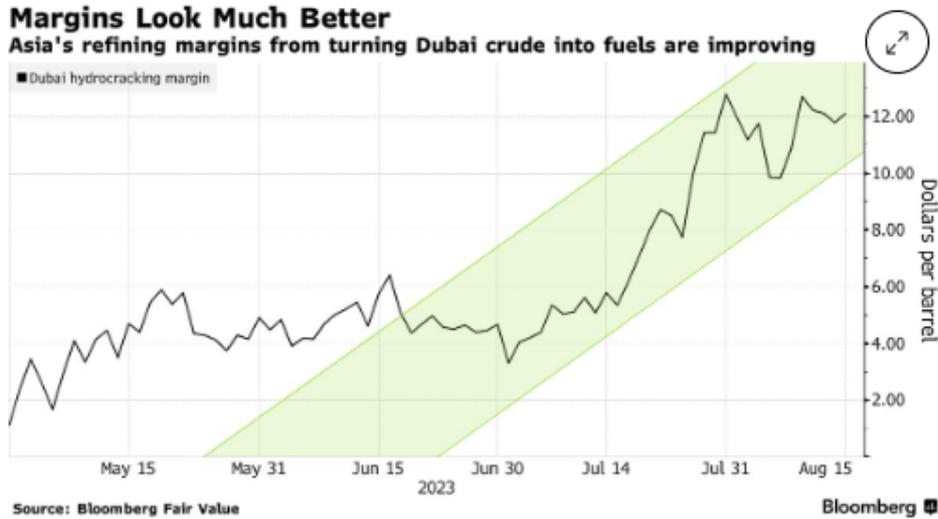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oint-in-time estimates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s Push Toward \$90 Lifted From Physical Markets All Over 원유 배럴당 90불 근접... 수요 줄지 않아

- 전 세계 시장에서 기록적인 원유 수요 때문에 트레이더가 화물에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 최근 수일동안 중국의 구매자들이 물량을 확보하면서 중동산 화물의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 북해에서 입찰이 쇄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바이어들도 미국 원유를 수백만 배럴 구입했다. 중국 경제 문제가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유 관련 순조로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US gas prices climb to highest level in nearly 10 months
 미국 휘발유 가격, 10개월 만에 최고치

-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4불에 달한다.
- AAA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어제 월요일에 갤런당 3.85 불이다. 이는 작년 10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AAA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평균 가격이 Arizona, Illinois, Utah 주를 포함한 11 주에서 4불이 넘는다. Colorado와 Michigan도 조만간 4불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반도체]

WSJ: Why the White House Went to Wall Street to Revive the U.S. Chips Industry

왜 백악관은 반도체산업 진작을 위해 월가에 접근할까?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이라고 할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해 월가의 인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 즉, 이른바 ‘반도체및 과학법’이 작년 여름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후에 연방 상무부는 납세자가 낸 자금 3백90억불 지원금을 수백개에 회사에 배분 하도록 지원하는데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금융가로 구성된 소규모팀을 조직했다.
- 이 팀은 약 30명의 전문가로 23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뤄졌다.

-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반도체 전략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 한편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10%만 생산하고 있다.

WSJ 기사

[한·미·일 관계]

Axios: Biden to broker crisis hotline with Japan, South Korea 미국 한국 일본, '위기시 핫라인 개설' 공동 발표 가능성

- 이번주 금요일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예정인데 3국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 3개국 정상 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목표로 국제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게 된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노력토록 미국 관리들이 양국을 수개월간 설득한 결과다.
- 3개국 정상은 그들의 관계를 가이드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회담을 통해 국사적 협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에 서로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3방향의 핫라인 개설을 발표 할 수도 있다.
- 바이든은 임기초부터 중국 야심을 가로막기 위해 인도 태평양과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과 북한도 인근 국가들에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 왔는데 예컨대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군사 훈련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해왔다.
-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지역적인 대응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토록 하는 것이다.
- 바이든의 그의 재임 2년 반동안에 베이징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조치들을 그대로 연장하고 여기서 스스로 새로운 제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Axios 기사

The Economist: Why Joe Biden will host Japan and South Korea's leaders at Camp David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제도화는 후임자의 번복 방지 목적

- 바이든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과 협력을 공공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
- 우선 3개국의 안보 목적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북한 대응에, 일본은 중국과 대만 갈등에 더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 한국은 거론하기를 어색해 한다.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 정책에 대해 일본은 비공개적으로, 한국은 공개적이길 원한다. 한국은 중국과 갈등 관계를 조심한다.

- 이번 3개국 발표 합의(정기적으로 3국간 회의 개최와 아마도 지도자 간의 핫라인 개설) 목적은 후임자들이 상호 결정된 제도적 합의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략및 국제문제 센터의 Christopher Johnstone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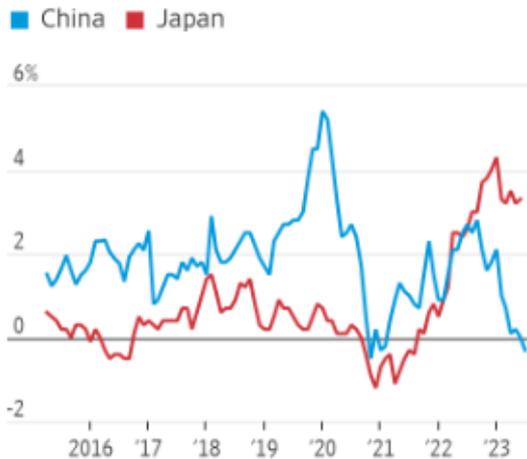
The Economist 기사

[아시아 경제]

WSJ: Japan's Economy Grows at 6% Pace in Second Quarter
일본 "2분기에 6% 성장률 기록했다"

- 일본 경제가 2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 수출 호조 덕분이다. 일본 경제는 3분기 연속 상승하여 팬데믹 이전 규모를 넘어선 것.
-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1분기에 0.9%였다. 2분기에 일본 경제는 연간 6% 상승한 반면, 미국은 2.4% 상승했다.
- 이는 자동차 수출 강세 덕분이다. 전체 수출은 전 분기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무역이 약세를 보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한 성장세이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도 지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Year-on-year change, consumer prices



Sourc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via Wind (China); Japan Statistics Bureau

Quarterly growth in Japan's gross domestic product, annual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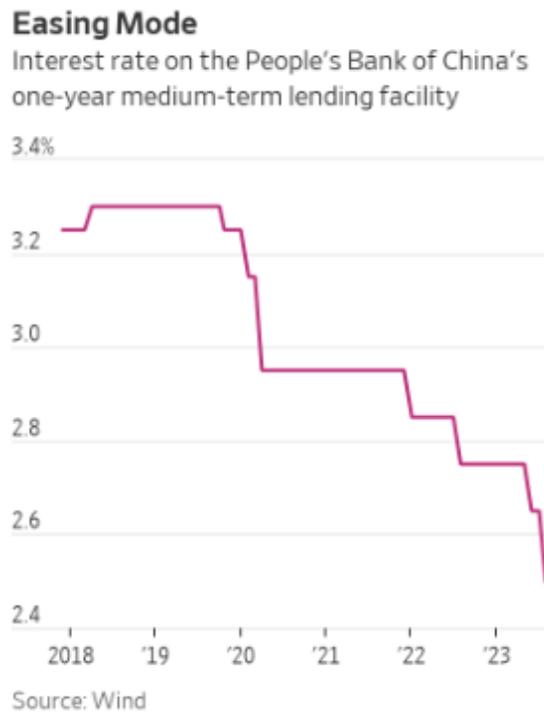


Note: real seasonally adjusted growth. Source: Japan Cabinet Office

WSJ 기사

WSJ: China Slashes Rates, Suspends Youth Jobless Data as Economy Signals Sharper Downturn
중국 "금리 인하와 청년 실업률 데이터 발표 중단"

- 중국 관리들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수개월 동안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 이로 인해 투자자와 기업들은 중국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됐다.
- 한편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달 경제가 더 악화되어 성장을 재점화 하는 것이 목표.
- 위안화는 화요일 홍콩 거래에서 미화 7.31불을 넘어서며 약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 역외(offshore) 위안화는 올해 초부터 달러 대비 5% 이상 하락해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
- 한편 16~24세 실업률은 6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해 6월에 21.3%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 대학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연령대 실업률이 여름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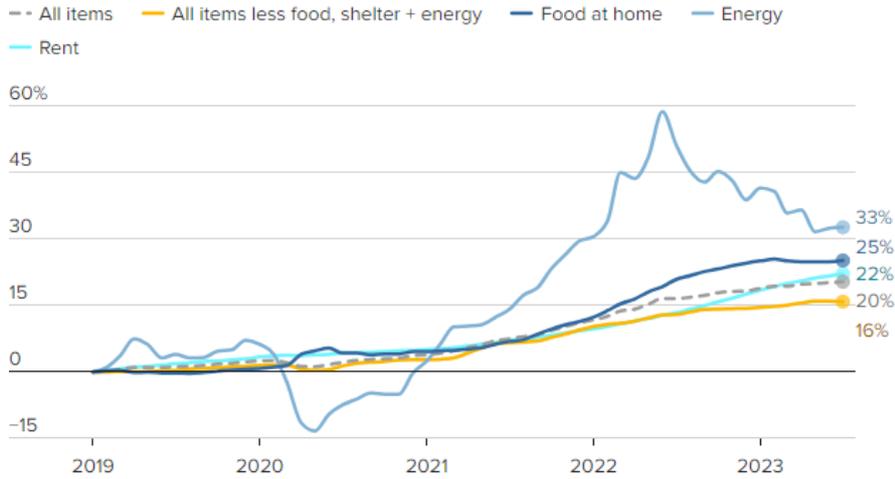
CNBC: Four reasons why the consumer is so confusing — and what that may mean for retail earnings

소매업체들이 혼란 느끼는 4가지 이유

- 소매업체들은 인플레이 하락, 금리 상승,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변화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기가 까다로워진 것. 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여전히 비싼 생필품: 최근 물가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The pace of inflation has cooled, but U.S. prices are still above pre-pandemic levels

Percent change in the U.S. consumer price index from January 2019 to July 2023



Note: Seasonally adjusted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CNBC analysis of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data as of Aug. 10, 2023



- 신용카드 빚과 임금↑: 미국인 신용카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불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인 임금이 지난 2년 동안 크게 상승한 것. 시간당 평균 수입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Credit card balances in the U.S. have crested \$1 trillion

Weekly totals of all credit card and other revolving loans at U.S. commercial b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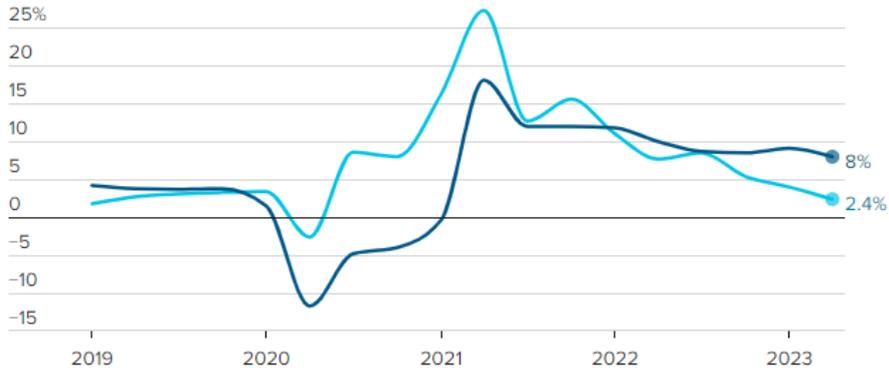
Note: Seasonally adjusted
Shaded area shows the Covid recession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U.S. Federal Reserve Board via FRED
Data last published Aug. 4, 2023



- 경험에 대한 지출↑: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후 경험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에 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팬데믹 동안 추세가 역전된 것.

U.S. personal consumer spending on goods and services

Year-over-year percent change as of Q2 2023



Note: Seasonally adjusted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via FRED



- 비싼 제품 구매↑: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들이 경기부양책으로 들어온 돈을 가전제품, 가구, 노트북과 같이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바뀐 구매 주기는 많은 주요 소매업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The personal savings rate in the U.S. is now less than half its pre-pandemic level

It hit historic highs after each of three rounds of federal Covid stimu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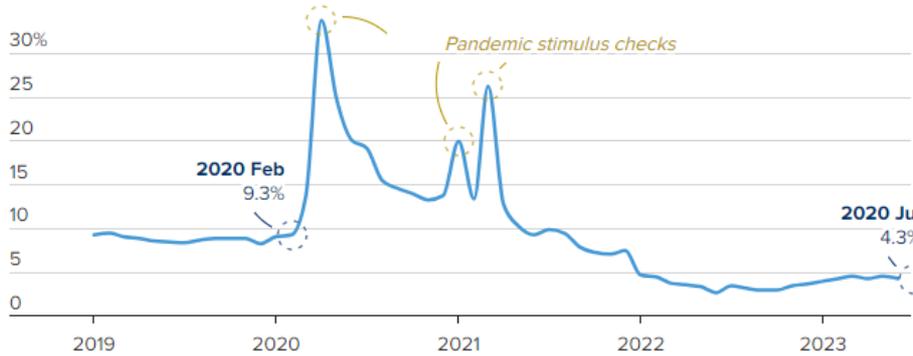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via FRED
Data as of July 28, 2023



CNBC 기사

CNN Business: Home Depot's slowing sales suggest Americans feel lousy about housing

Home Depot 매출 둔화, 미국인들의 낮은 주택 선호도 현상

- 3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보였던 홈디포는 2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에도 하락한 바 있다.
- 새 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 주택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주택 입주 시 주택 개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 이에 따라 홈디포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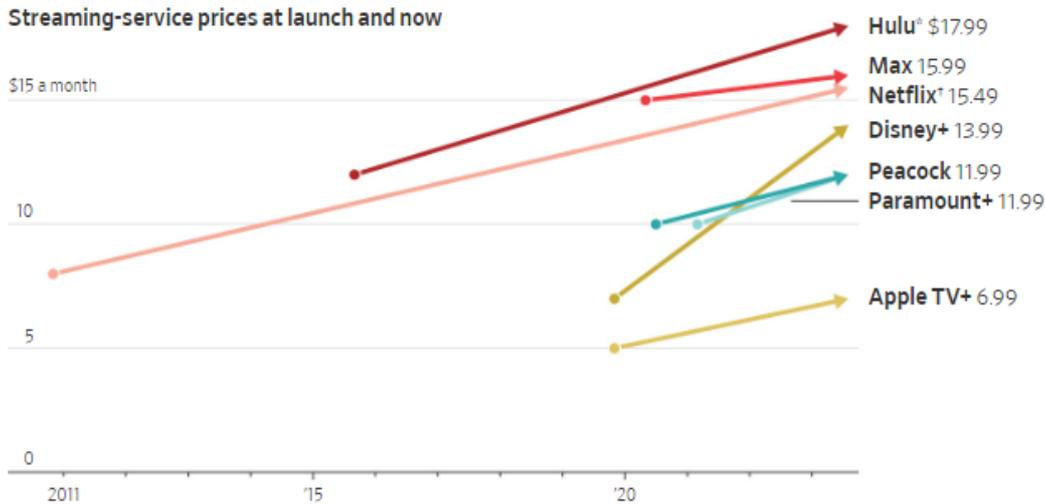
- 7월 주택 구매 심리 지수에 따르면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Streaming Prices Are Up Nearly 25% in a Year. That’s Part of the Plan.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1년 만에 약 25%↑

- 스트리밍 서비스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약 25% 상승했다. 이는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객보다 기본 서비스보다 더 저렴한 광고 지원 요금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디즈니+는 지난 가을에 이어 또 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Peacock, Max, 파라마운트+, Apple TV+ 또한 가격을 인상했다.
- 이들은 수백억 불의 손실이 쌓이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수년간 빠른 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해 왔기 때문이다.
- 이들은 이제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 하고 있는 것.



*Launch info for first ad-free plan *Launch info for first streaming-only plan
 Note: Monthly prices for the most popular ad-free versions in the U.S. and as of Aug. 10, except for Hulu and Disney+ prices, which go into effect Oct. 12. Max was known as HBO Max until May 2023.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美재무 "중국 경제 둔화, 미 경제에 리스크 요인"

"美경제 올바른 방향에 있어...생활물가 낮추기 위해 모든 조치할 것"
 "배터리·광물 등 클린에너지 핵심 생산 특정국에 집중...다변화해야"

"경제안보 보호 절대적으로 중요...미국에 투자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불안이 미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경제 전망을 좋게 본다면서 일단은 중국 경제 문제를 "리스크(위험 요인)라고 하자"고 덧붙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